

# 트럼프 '2차제재' 압박통했다...꿈쩍않던 푸틴, 입장바꿀까

### 트럼프,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미국무 "러, 구체적 휴전조건 언급" 러,美德사 면담 결과 "건설적"...젤렌스키 "러, 휴전의향 좀더 생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년5개월 넘게 이어진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는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와 러시아 교역국에 대한 2차 제재를 지렛대 로 러시아에 종전 압박을 한층 높였음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습을 멈추지 않았던 터다.

미국이 러시아에 통보한 '휴전 데드라인'(8월 8일)을 이를 앞두고 이르면 내주 정상외교가 가동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교착 상태였던 라-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풀개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

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회담이 매우 조기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스티브 워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워트코프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면담 결과에 대해 "고도로 생산적"이었다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한 유럽 정상들에게도 곧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

혔다고 미국 NBC 방송은 통화 내용을 아는 유럽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과 워트코프 특사의 면담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들은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러시아 언론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워트코프 특사의 면담과 이후 나온 미러 양측의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과 휴전 협상을 두고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며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워트코프 특사에게 휴전 동의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연설을 통해 "그들(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통했다"며 "러시아가 이제 좀 더 휴전에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참여 범위와 시기, 장소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양자 정상회담뿐 아니라 젤렌스키까지 포함하는 삼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에 통보한 '휴전 데드라인'을 이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가혹한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고강도 추가 제재를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해 온 휴전 협상 진전으로 체면을 살리려는 양측의 이해관

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정상회담이 현실화하더라도 휴전 협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이용해 2차 제재 위협을 피하고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 같은 가능성에 잘 대처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라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대비해 외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도 예고했던 대러 제재의 고삐는 풀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관세에 더해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율은 50%로 치솟게 됐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조치로, 대러 2차 제재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미리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 이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 건물 근처가 폭격으로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건물과 인근 난민 캠프가 피해를 입었다. /TASS-연합뉴스

## “이스라엘군 유엔 치료소 등 공습...31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시간) 오전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31명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 자사티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던 치료소, 중부 누세이르트 난민촌의 민가 등이 공격받았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유엔 치료소 공습에 앞서 인근 지역에 대포 경보를 발령했으나 공습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알자지라는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가 병원, 학교, 난민촌 등을 지휘통제센터로 이용한다며 공습을 이어왔다.

알자지라는 이날 사망자 중에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숨진 이들이 10명 포함됐으며 이는 지난 달 이스라엘이 구호품 배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매일 10시간씩 인구 밀집지역에서 '전술적 교전 중단'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하루 동안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추가돼 총 13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숨진 이들 중 96명은 어린이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전날 가자지구에 구호품 트럭 8대만 진입했다며 "2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려면 최소 600대의 트럭이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성명에서 "우리는 협력 기관들과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자 최선을 다하지만 이는 엄청난 필요의 바다에서 한 방울에 불과하다"며 "대량 기아 사태를 막으려면 식량 지원을 매일 끊임없이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GD 홍콩공연 앞두고 티켓 사기 기승

### 사기 접수 30여건·피해액 1억여원

가수 지드래곤(GD)의 월드투어 홍콩 공연을 앞두고 티켓 판매 사기와 압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홍콩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7일 홍콩 명보와 성도일보에 따르면 8-10일 홍콩 아시아월드 아레나에서 열리는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 관련 사기 피해 신고 30여건이 홍콩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총 61만 홍콩 달러(약 1억777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하기로 했다가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기꾼 말

에 속아 돈을 더 보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 중에는 18만 홍콩달러(약 3천180만원)를 뜯긴 여성도 있었다.

홍콩에서 8년 만에 열리는 지드래곤의 공연 티켓은 판매 시작 직후 매진됐으며, 압표상들은 보통 정가의 2배에 가격에 티켓을 되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마지막 날 VIP좌석의 경우 12만 홍콩달러(약 2천100만원)짜리 '정신 나간 가격'의 압표도 등장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앞서 대만에서도 지드래곤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해 2천만 대만 달러(약 9억원)를 챙긴 압표상이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살 빼는 약 경쟁 격화...위고비 제약사 감원 경고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운데 정리하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퇴임을 앞둔 라르스 프루에르그르 요르겐센 최고경영자(CEO)는 덴마크 방송 DR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 "회사를 조정해야 할 때 일부 부문에서는 인력을 줄여야 하고, 축소되어야 하는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감축에 관한 결정은 8일 취임하는 신임 CEO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출시한 노보노디스크는 살 빼는 약 열풍 속에 급성장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복제약이 확산하면서 특히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경쟁사인 미국 제약사 알라이리얼의 비만 치료제 제미칸트와 의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2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small>자격취득 총비용</small>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small>자격취득 총비용</small>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15회	합격시까지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6회	합격시까지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